

일부 치위생과 여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연관성

박혜민¹ · 김장락² · 강윤식² · 정백근^{2*}

¹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²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건강과학연구원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과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한다¹⁾. 장애는 유전 등 선천적인 원인으로 유발되며, 최근에는 노령화, 외상이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545,637명, 2018년 2,585,876명, 2019년 2,618,91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애 인구의 비율은 2017년에 4.9%에서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는데 이는 일생 중에서 장애를 가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대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사회지도층,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는 장애인 접촉경험과 자원봉사활동 유무에 초점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³⁾.

2004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DMF rate)과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비장애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처치영구치율(FT rate)은 낮은 반면 상실영구치율(MT rate)은 높게 나타났으며, 치주질환유병자율도 높아 장애인의 과반 수 이상이 치아와 잇몸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치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낮으며, 구강질환의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⁴⁾. 치과 영역에서는 “임산부나 노인, 극심한 치과 공포증이 있는 자와 전신질환이나 신체 또는 인지장애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곤란한 자”를 치과적장애인(Patients with special needs)으로 정의한다⁵⁾. 201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치과가 곤란하여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한 치과적장애인은 67,275명으로 장애인 인구의 2.56%로 집계되었으며,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감안하였을 때 더 많은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⁶⁾. 이들은 인지능력의 저하와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주소(Chief complaint)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읊

접수일: 2021년 10월 18일 최종수정일: 2021년 11월 3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4일

교신저자: 정백근, (527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055-772-8094, Fax: 055-772-8099

E-mail: jbk300@gnu.ac.kr

직업의 제한으로 구강검진과 방사선사진 촬영이 곤란하여 구강질환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치료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전신질환과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은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장애인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⁷⁾.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치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치과위생사는 잇솔질 교습,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적 치과처치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환자는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보건인력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는데⁸⁾ 이는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감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를 이루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공감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의 형성과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⁸⁾. 선행 연구⁹⁻¹⁰⁾를 통해 초·중학생의 공감능력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어 공감능력은 장애인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정보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수단을 통하여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정하여 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병원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환자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조사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에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치위생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2,3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 2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연구대상 학교의 2,3학년 재학생 총 248명의 82.7%에 해당하는 205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3명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였으며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하여 총 19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GIRB-A20-Y-0036)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전에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 학과장의 허락을 구한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9문항, 공감능력 30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장애인에 대한 태도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Mehrabin과 Epstein의 정서공감척도, Davis의 대인관계반응척도(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Bryant의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가 번안하였고, 문경희¹²⁾가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이며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되어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는 1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역순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계수(Cronbach's α)는 .796이었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의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을 허경호¹³⁾가 수정 보완한 포괄적대인의사소통능력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로 측정하였다. 총 15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계수(Cronbach's α)는 .861이었다.

(3)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Siller가 개발한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DFS, Disability Factor Scale)를 이종남이 번안하고, 성수진¹⁴⁾이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41개 문항으로 7개 하위 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항목으로 구성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점수는 역순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계수(Cronbach's α)는 .894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1.0(IBM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그리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

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101명(53.2%), 2학년 89명(46.8%)이었다. 연령은 22세 92명(48.4%), 21세 이하 83명(43.7%), 23세 이상 15명(7.9%)이었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연구대상자 147명(77.4%), 종교가 있는 대상자 43명(22.6%)이었다. 성적은 평점 3.0 이상 150명(78.9%), 평점 3.0 미만 40명(21.1%)이었다. 입학 동기는 기타 179명(94.2%), 적성 11명(5.8%)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133명(70.0%), 만족 57명(30.0%)이었다. 장애인 접촉경험은 예 127명(66.8%), 아니요 63명(33.2%)이었다. 장애인 봉사경험은 예 100명(52.6%), 아니요 90명(47.4%)이었다.

3.2.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3 ± 0.32 점이었다. 공감능력의 4개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지적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각각 평균 3.64 ± 0.38 점, 평균 3.68 ± 0.50 점이었고 정서적 공감능력에 해당하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각각 평균 3.54 ± 0.39

점, 평균 3.66 ± 0.41 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9 ± 0.40 점이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54 ± 0.37 점이었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전공만족도($t=2.851$, $p=.005$)이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적($t=2.184$, $p=.033$)과 전공만족도($t=4.811$, $p=.000$)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3.4.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공감능력($r=.185$), 의사소통능력

($r=.160$)과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하위요인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r=.256$), 개인적고통($r=.150$)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3.5.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연관성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 때 독립변수는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을 설정하였고, 공감능력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1.822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으며, VIF는 2.157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취하기($B=.210$)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0%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N	%	
Grade	2nd	89	46.8
	3rd	101	53.2
Age	≤21	83	43.7
	22	92	48.4
	≥23	15	7.9
Gender	Female	190	100.0
Religion	Yes	43	22.6
	No	147	77.4
Academic score	3.0≤	150	78.9
	<3.0	40	21.1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11	5.8
	Etc.	179	94.2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57	30.0
	Unsatisfied	133	70.0
Presence of contact the disabled	Yes	127	66.8
	No	63	33.2
Presence of the disability volunteer experience	Yes	100	52.6
	No	90	47.4

Table 2.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Min	Max	Mean ± S.D
Empathy ability	Perspective taking	2,57	4,71	3,64 ± 0,38
	Fantasy	2,14	4,86	3,68 ± 0,50
	Empathic concern	2,38	4,50	3,54 ± 0,39
	Personal distress	2,63	4,75	3,66 ± 0,41
	Total	2,83	4,43	3,63 ± 0,32
Communication competence	Total	2,67	5,00	3,69 ± 0,40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otal	2,63	4,44	3,54 ± 0,37

Table 3.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Mean ± S.D	t/F	P	Mean ± S.D	t/F	P	Mean ± S.D	t/F	P
Grade	2nd	3,67 ± 0,32	1,832	,069	3,74 ± 0,42	1,560	,120	3,56 ± 0,38	,733	,464
	3rd	3,59 ± 0,31			3,65 ± 0,39			3,52 ± 0,37		
Age	≤ 21	3,66 ± 0,30	,910	,404	3,74 ± 0,43	1,312	,272	3,56 ± 0,36	,666	,515
	22	3,61 ± 0,33			3,64 ± 0,39			3,55 ± 0,38		
	≥ 23	3,56 ± 0,32			3,68 ± 0,35			3,44 ± 0,38		
Religion	Yes	3,64 ± 0,28	,255	,799	3,77 ± 0,40	1,429	,155	3,50 ± 0,35	-,928	,355
	No	3,62 ± 0,33			3,67 ± 0,40			3,56 ± 0,38		
Academic score	3,0 ≤	3,64 ± 0,31	1,003	,317	3,72 ± 0,41	2,184	,033	3,54 ± 0,37	-,350	,726
	< 3,0	3,58 ± 0,33			3,57 ± 0,38			3,56 ± 0,39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3,58 ± 0,32	-,532	,595	3,76 ± 0,46	,619	,536	3,53 ± 0,39	-,076	,939
	Etc.	3,63 ± 0,32			3,69 ± 0,40			3,54 ± 0,37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3,73 ± 0,31	2,851	,005	3,90 ± 0,41	4,811	,000	3,59 ± 0,34	1,107	,270
	Unsatisfied	3,58 ± 0,31			3,60 ± 0,37			3,52 ± 0,39		
Presence of contact the disabled	Yes	3,64 ± 0,33	,663	,508	3,69 ± 0,39	-,246	,806	3,55 ± 0,38	,333	,739
	No	3,61 ± 0,29			3,70 ± 0,43			3,53 ± 0,36		
Presence of the disability volunteer experience	Yes	3,63 ± 0,32	,117	,907	3,72 ± 0,42	,967	,335	3,54 ± 0,41	-,167	,867
	No	3,62 ± 0,31			3,66 ± 0,39			3,55 ± 0,33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1	2	3
1	1		
2	,405***	1	
3	,185*	,160*	1

1: Empathy ability, 2: Communication competence, 3: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ub-factors of empathy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1	2	3	4	5
1	1				
2	.169*	1			
3	.429***	.433***	1		
4	.447***	.377***	.676***	1	
5	.256***	.045	.136	.150*	1

1: Perspective taking, 2: Fantasy, 3: Empathic concern, 4: Personal distress, 5: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about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variable	B	SE	β	t(p)	TOL	VIF
Constant	2.511	.347		7.245***		
Satisfaction on major	.025	.063	.030	.391	.871	1.149
Perspective taking	.210	.088	.212	2.383*	.644	1.552
Fantasy	-.018	.061	-.024	-.294	.777	1.288
Empathic concern	-.004	.099	-.005	-.044	.464	2.157
Personal distress	.048	.092	.053	.517	.488	2.048
Communication competence	.046	.080	.050	.575	.669	1.494
$F(p)$				2.326*		
adj. R^2				.040		
Durbin-Watson				1.822		

* $p < .05$, ** $p < .01$, *** $p < .001$

4. 고찰

본 연구는 향후 치과위생사로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담당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은 3.63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한 정¹⁵⁾의 연구 3.70점과 채¹⁶⁾의 연구 3.69점과 비슷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3.69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한 황¹⁷⁾의 연구 3.66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치위생과 여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3.54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조¹⁸⁾의 연구 3.50점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

과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중간 이상이었으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더욱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에서는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치위생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업기초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 등¹⁹⁾은 나이, 학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또한 김 등²⁰⁾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특성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조¹⁸⁾, 배²¹⁾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만이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나²²⁾의 결과에서 공감능력은 장애수용과 정적상관($r=.316$)이 있으며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취하기($r=.316$)가 장애수용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여 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고통이 정적상관이 있었던 것과 다르게 나²²⁾의 연구에서는 공감적관심이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공감능력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는 있으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이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만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스스로 취하려는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검증된 다른 선행연구^{10,2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졌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의 개인적 고통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와 함께 고려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²³⁾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장애수용태도간의 상관정도는 인지적 공감능력($r=.434$, $p<.01$), 정서적 공감능력($r=.320$,

$p<.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공감능력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단순분석에서는 유의하였으나,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배²¹⁾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이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나, 박²⁴⁾의 연구에서 장애아동 부모간의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수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의사소통능력보다 공감능력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다소 높으며 특히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관점취하기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박²⁴⁾은 의사소통능력 전반은 장애수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 중 상대수용만이 장애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대수용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스스로 취하려는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와 유사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하위요소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하위요소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의사소통능력을 요인별로 구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지적 공감능력의 관점 취하기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치위생과 여학생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소 중 관점 취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조사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의 치위생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의 낮은 설명력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20년 9월 2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경상남도 A대학교 치위생과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190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감능력 3.63점, 의사소통능력 3.69점, 장애인에 대한 태도 3.54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공감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r=.185$ 로 정적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와 개인적 고통만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관계가 있었다.
4. 의사소통능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r=.160$ 로 정적관계가 있었다.
5.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연구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관점 취하기 ($B=.210$)이었고, 설명력은 4.0%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치위생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RCID ID

Baek-Geun Jeong <https://orcid.org/0000-0003-3411-6100>

참고문헌

1. Lee HS, et al. Comparison of dental staff's attitude toward the special health care needs patients between the special dental clinic and the general dental clinic.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2013;9:85-90.
<http://doi.org/10.12655/KADH.2013.9.2.85>
2. Retrieved 11,2020,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5972
3. Kwon MS, Lee JH.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disabled. JKAIS 2014;15:3667-3674.
<http://doi.org/10.5762/KAIS.2014.15.6.3667>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oral health survey for disabled peopl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pp.1-14,. 2005.
5. Chang JH. How to establish dental treatment plans for the pati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JKDA 2015;53:770-778.
6. Retrieved 11,2020, from <https://www.sndcc.org/snudhci/bbs/B0000001/view.do?ntId=67&menuNo=200034&sdate=&searchWrd=%EC%9E%A5%EC%95%A0%EC%9D%B8%EA%B5%AC%EA%B0%95%EC%A7%84%EB%A3%8C%EC%84%BC%ED%84%B0+%EC%97%B0%EC%B0%A8%EB%B3%B4%EA%B3%A0%EC%84%9C&searchCnd=1&edate=&pageIndex=1>
7. Chang JH. Treatment barriers of special needs patients - Part 1, consider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pecial care dentists.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2019;15:7-13.
<https://doi.org/10.12655/KADH.2019.15.1.7>
8. Kim MH. The influence of the adult attachment of the femal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 on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2013.

9. Lee EM. The Influence that knowledge,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toward disabled child have on the receptive attitude of elementary higher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5.
10. Kang YS, Lee J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ic ability on receptive attitud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FMS* 2013;25:1429–1439. <http://doi.org/10.13000/JFMSE.2013.25.6.1429>
11. Kim SJ. The effect of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on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17.
12. Mun KH.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burnout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16.
1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JJCS* 2003;47:380–408.
14. Sung SJ.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attitudinal change program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2002.
15. Chung MS.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332–340.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32>
16. Chae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KAIS* 2016;17:95–103.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17. Hwang HM.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7;12:1–10. <http://dx.doi.org/10.15715/kjhcom.2017.12.1.1>
18. Cho YH.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on psychiatric nurses imag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16;25: 294–302.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294>
19. Kwon MJ, et al. The study of factor that affects the stigma and attitude toward an adult with a dis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KITS* 2013;8:117–125.
20. Kim SY, et al. A study on the perception, Experience and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AJMAHS* 2018;8:535–544. <http://doi.org/10.21742/AJMAHS.2018.12.25>
21. Bhe S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pting attitude of disabled minors,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stress handling method of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2012.
22. NA H. The Effects of empathy and parenting participation on disability acceptance of fathers with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2020.
23. Lee N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multicultural awareness level, and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 of general students in high school integrated clas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5.
24. Park JW.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ptance of disabilities and communica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2016.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mong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Hye-Min Park¹ · Jang-Rak Kim² · Yune-Sik Kang² · Baek-Geun Jeong^{2*}

¹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²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o explore the empathic abiliti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mong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190 female students in their second and third year of study at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sangnam-do province, South Korea, from September 2–11,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Results: The participants' scores for empathic abiliti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3.63, 3.69, and 3.54 points, respectively.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empathic abil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Regarding the sub-elements of empathic abilities,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ales measuring their perspective-taking abilities and personal distress ($p < .05$). A positive correlation ($p < .05$) was observed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cale measuring their perspective-taking abilities ($B = .210$); those with a higher perspective-taking ability display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onclusion: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empathic abilities, which positively influenced their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Keyword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Patients with special needs, Perspective-taking ability